

랄프의 앓는 몸과 유명: 『여인의 초상』 다시 읽기

김 선 제

1. 프리드만과 심미주의의 “편재성”

헨리 제임스(Henry James)의 『여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Lady*)을 읽는 비평적 키워드의 하나로 심미주의(aestheticism)를 꼽을 수 있다. 조나단 프리드만(Jonathan Freedman)은 『취향의 공언: 헨리 제임스, 영국 심미주의, 상품 문화』(*Professions of Taste: Henry James, British Aestheticism, and Commodity Culture*)에서 영국 심미주의라는 무대에서 제임스가 펼친 퍼포먼스의 복잡한 성격을 규명하는 일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프리드만이 파악하기에 영국 심미주의는 단순하게 문학적 혹은 예술적인 경향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없으며 도리어 미학의 새로운 정의와 더불어 미학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된 각축장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문맥에 뛰어난 제임스의 활약 역시 단지 문학내적인 파장만을 지닌 것으로 협소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프리드만은 역사적으로 정밀한 읽기를 통해 19세기 후반의 영국을 흥미하고 나아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미국 사회로 매우 빠르게 유입된 심미주의와 제임스가 맺은 관계를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제임스가 심미주의를 리모델링하는데 상당한 파워를 발휘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xvi-xviii). 그는 제임스가 심미주의와 조우한 결과가 처음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낸 작품으로 『여인의 초상』을 든다. 이 작품에서 심미주의는 악의 형태로 재현된다. 제임스가 창조한 사악한 심미주의자 길버트 오스몬드(Gilbert Osmond)는 향후 50년간 심미주의자의 소설적 재현 양상을 결정지를 만큼 “전염성이 강한”(pestiferous) 인물이다(145). 프리드만은 오스몬드로에게 집약된 심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 지니는 비평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제임스가 이사벨 아처(Isabel Archer)를 중심으로 심미주의에 관해 제기된 그간의 문제들을 타개할 하나의 “정제된”(purified) 모델을 제시한다고 지적한다. 곧 프리드만은 심미주의를 분별하고자 한 제임스에 주목한다.

프리드만이 『여인의 초상』에서 읽어내는 바는 심미주의의 “편재성”(Ubiquity)이다. 그는 “불모의 딜레탕트”(sterile dilettante)로서의 오스몬드가 대변하는 심미주의의

“냉각력”(freezing power)에서 랄프 터치(Ralph Touchett)과 이사벨 역시 자유롭지 못함을 역설하며 제임스가 당대 만연한 심미주의와 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들을 오스몬드를 중심으로 재현한다고 설명한다. 즉 오스몬드는 제임스가 해석한 역사적 문맥을 반영한다. 제임스가 『여인의 초상』 집필을 마무리하기 위해 런던에 도착한 1880년은 영국이 심미적 열광의 극점을 목격할 시점으로 예술 동인(coterie) 차원의 심미적인 관심은 공적인 센세이션으로 옮겨간 찰나였다. 영국 사교계를 풍미한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가 보여준 “계산된 난폭함”(calculated outrageousness) 등의 모습으로 표출되곤 한 심미주의는 제임스가 관람하고 구독한 연극과 신문, 잡지 그리고 그가 참석한 디너파티의 공통된 주제였다(146). 일본 도자기를 수집하는 오스몬드의 취향은 1870년대 말의 영국 심미주의자들의 페티시즘(fetishism)을 노정하며 딸 팬지(Pansy)와 워버튼 경(Lord Warburton)의 결혼을 획책하는 데서 드러나는 오스몬드의 세속적인 관심은 태생적으로 상류계층에 속하지 못한 심미주의자들이 추구한 자아 확대의 시도들을 명시한다. 제임스는 이와 같이 오스몬드를 사회적인 프리즘을 통해 그려냄으로써 독자가 그의 행동이 내포하는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제임스는 독자들이 오스몬드의 행동이 공동체 안의 파워 게임에서 맡는 역할과 이러한 게임의 편재성, 심지어는 진부함을 인지하도록 요구한다(152).

『여인의 초상』에서 재현되는 심미주의는 심미주의자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며 심지어 작가 제임스까지 감염시키는 하나의 “만연한 전염병”(endemic contagion)으로 인식된다는 게 프리드만의 진단이다(153). 프리드만은 랄프와 이사벨에게서도 같은 병인을 발견한다. 랄프는 오스몬드와 “감식가”(connoisseur)의 면모를 공유하며 이사벨은 오스몬드의 심미주의가 지니는 문제적인 성향들을 공유하기에 그에게 예속된다. 랄프가 자신의 마음 속 초상화의 갤러리에 이사벨을 걸어두고 보고 싶어 했다면 오스몬드는 랄프가 오직 상상으로 해왔던 일을 이사벨과의 결혼을 통해 실현한다는 분석이다. 오스몬드는 이사벨을 아름답고 정적인 예술품으로 변화시킨다. 프리드만의 관점에서는 이사벨 역시 자신의 상상력이 요구하던 바를 만족시키기 위해 마음속에서 오스몬드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녀의 전염병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프리드만의 리딩에서 오스몬드, 랄프, 그리고 이사벨은 모두 자신의 심미안의 탓에 걸린다. 이사벨은 수집가를 수집하려다가 그녀 스스로 수집 당한다(155-57).

프리드만은 제임스까지 일면 같은 전염병의 이름으로 진단한다. 그는 네드 로와지에(Ned Roisier)가 37장에서 이사벨을 “우아한 레이디의 그림”(the picture of gracious lady) 자체로 바라보는 장면을 그 동안 작품 안에서 쌓여 온 심미주의의 부정적인 힘이 절정에 이른 결과로 파악한다. 제임스는 이 지점에서 이사벨의 역할이 오로지 남편

을 “재현”하는 것으로 변화해 왔음을 독자에게 상기시키고 동시에 심미주의와 작가의 연출이 지니는 유사성까지 환기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프리드만은 오스몬드가 제임스의 작가적 심미주의를 표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소설이 한 “여인의 초상”을 그린다고 주장한다면 제임스는 그가 비판하려는 미학적 관점과 은연중에 궤를 같이 하는 셈이다. 누구보다 오스몬드가 이사벨을 그 자신의 재현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력한다는 점이 주된 근거이다. 적어도 이 클라이맥스의 순간엔 등장인물들과 작가까지 모두 오스몬드의 사악한 심미주의에 연루된 듯이 보인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동시에 프리드만은 바로 이 절정의 순간에 작품 내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과는 반대 방향의 미학적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모멘트가 지나면 이사벨의 고양되고 정제된 심미주의와 오스몬드의 심미주의 사이의 구별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제임스는 궁극적으로 이사벨이 표상하는 새로운 미학적 의식에 공감을 표명하고 오스몬드식 심미주의를 구해낼 가능성으로 나아간다는 게 프리드만의 최종적인 입장이다.

이사벨이 오스몬드의 메마른 심미주의와 단절하고 긍정적인 의미의 심미주의를 다시 쓰게 된다는 프리드만의 논지가 근거로 삼는 대목은 이사벨이 침묵 속에서 공상에 잠기는 42장이다. 이 장에서 이사벨이 경험하는 비전은 오스몬드의 심미적 비전이 그러하듯이 전적으로 자아에 근거를 둔다. 그렇지만 프리드만은 자세히 짚어볼 때 이사벨의 비전이 사물들이 그의 초연한 명상에서 대상화되는 오스몬드의 나르시즘적인 비전과는 차별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사벨은 그녀 자신의 비전을 순수하게 그 자체로 경험한다. 프리드만은 이사벨의 비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를 월터 페이터(Walter Pater)가 『르네상스』(*Renaissance*)의 “결론”(Conclusion)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순간과 함께 놓고 이야기한다. 제임스와 페이터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의식이 고양된 비전 속에서 최고조로 발현되는 순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결말을 이룬다. 말하자면 두 작가에게 강렬한 비전을 겪는 완벽한 순간은 죽음과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성취의 순간이다. 그런데 이사벨이 경험하는 비전은 소설이 긍정적인 의미의 심미주의를 찾아나가는 하나의 길이 되지만 오직 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기미는 많은 비평가들에게 제임스를 “오만한 의식의 감식가”(an arrogant connoisseur of consciousness)라고 비난할 만한 여지를 준다는 점을 프리드만은 또한 지적한다. 이러한 에피파니(epiphany)의 순간은 자아가 타자와 만날 가능성, 행동의 가능성, 나아가 역사적 참여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이사벨을 다시 한 번 의식의 감옥에 가둘 위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적일 수 있다(163-64). 그러나 프리드만이 보기에 제임스는 이 같은 비판을 예상하고 피해간다.

프리드만이 주목하는 대목은 이사벨이 홀로 말을 타고 캠페냐(Campagna)를 방

문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이사벨의 의식과 사물들 사이에 “심오한 공감”(profound sympathy)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풍광의 슬픔”(the sadness of landscape)은 이사벨의 슬픈 기분을 반영하고 목동들의 “외로운 태도”(lonely attitudes)는 그녀 자신의 외로움의 정서를 비춰주며 따라서 이사벨은 이제 로마를 “사람들이 고통 받았던 장소”로, 곧 공유된 고통이 존재하는 인간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164-65). 프리드만은 이 순간 이사벨이 그녀의 “개인적인 아픔”과 “풍광의 슬픔”이 하나의 공동체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내통하는 부드러운 비전을 획득한다고 본다. 이사벨은 관망자의 우위를 전제하는 피상적인 심미주의를 넘어 역사의 진행 과정에 그녀 자신을 참여시키는 보다 의미 있는 심미적 관점으로 나아가는 셈이다. 이사벨의 비전은 작가가 본인에게 우월감이 아닌 친밀감에 바탕을 둔 새로운 심미적 모델을 제공한다. 프리드만의 관점에서 제임스가 주인공을 초상화의 프레임 안에 가두는 오스몬드적인 작가상과 결별하고 이사벨의 비전을 따른다는 증거는 소설의 결말에서 이사벨의 딜레마를 다루는 그의 자제력에서 찾을 수 있다. 제임스는 이사벨이 오스몬드에게 돌아가는 결말의 해석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둠으로써 오스몬드의 심미주의가 소설의 내러티브까지 침투하여 발휘해 온 영향력을 끊어내려고 시도한다. 작가는 침묵함으로 인해 인간이 지닌 근본적으로 신비로운 타자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이사벨이 그녀를 에워싸 온 내러티브의 프레임의 문지방을 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프리드만의 독해는 새로운 의식의 지평을 마련한 이사벨이 제임스가 지향하는 작가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끝을 맺는다. 프리드만이 심미주의라는 개념에 집중하여 보여준 읽기에서 성취한 바는 이사벨의 심미적 의식이 오스몬드적인 심미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는데서 작가의 심미주의 리모델링 작업을 읽어낸 데 있다. 프리드만은 당대의 역사적 문맥을 비판적으로 읽고 대안으로서의 심미주의를 모색하고자 한 제임스의 면모를 새롭게 조명하여 심미주의와 제임스의 역학 관계에 관한 경청할 만한 나름의 통찰을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프리드만의 비평작업은 이사벨과 오스몬드 사이에 놓인 랄프를 밀도 있게 고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놓침으로써 다소 평면적인 읽기를 구사한 셈이다. 프리드만의 독해에서 랄프는 오스몬드의 심미주의가 지니는 부정적인 일면을 반사하는 수동적인 인물로 이해되며 더욱이 랄프의 “앓는 몸”(aching body)은 하나의 전염병으로서의 심미주의가 침윤하는 몸 혹은 심미주의의 부정적인 면모를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몸으로 여겨진다. 프리드만은 이사벨이 오스몬드의 심미주의를 넘어서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랄프의 심미주의적 태도 역시 극복해야 한다는 식의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랄프는 이사벨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작품 초반부터 이미 폐결핵을 앓고 있다. 그런데 프리드만은 랄프의 폐결핵이라는 병명을 슬쩍 오스몬드식 심미주의라는 질병으로 치환한 채 제

임스가 상세히 제시하는 랄프의 구체적인 병세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편협한 읽기방식을 보여준다. 랄프가 오스몬드와 많은 유사점을 지니는 심미주의자이자 뛰어난 감식가이고 따라서 랄프의 앓는 몸은 오스몬드가 구현하는 심미주의의 부정적인 힘의 만연함을 체화한 결과라는 프리드만의 해석은 랄프가 오스몬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담아내는 데는 아무래도 미흡하다.

랄프는 기실 이사벨의 행방과 관련하여 조용하지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랄프는 아버지가 이사벨에게 자신이 상속받을 몫의 유산까지 물려받도록 설득함으로써 마담 멀(Madame Merle)과 오스몬드가 이사벨을 그들의 게임의 제물로 끌어들이 기회를 제공한다. 만일 랄프의 선의로 인한 유산상속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오스몬드가 이사벨을 포획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지도 못했다. 말하자면 랄프는 애초부터 오스몬드의 심미적 기획보다 우선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물론 이사벨이 오스몬드의 포즈를 비세속적인 자의 도도함으로 잘못 읽는 바람에 그의 마수에 걸려들었듯이 랄프 역시 어느 면에서 이사벨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오스몬드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되고 이사벨의 비극에도 책임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만을 중시하여 랄프를 오스몬드의 심미주의라는데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로 축소해서 이해한다면 작가의 의도와는 유리된 읽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로버트 웨이부쉬(Robert Weisbuch)는 오스몬드와 랄프를 “예술로 삶을 대체하는 악귀”(art-substituting-for-life ghouls)라는 틀로 함께 묶어서 이해하는 입장에서 거리를 두며 오히려 오스몬드와 랄프의 차이점이 오스몬드를 다른 사람의 삶을 냉각하고 파먹는 악귀로 그리고 랄프를 제임스 본인의 분신으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해석을 제기한 바 있다. 랄프가 이사벨의 도착을 두고 방에 걸도록 우편으로 부쳐진 티티안(Titian)의 그림에 비유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가 곧 이사벨의 열정적인 힘이 그리스의 양각 작품보다 또 위대한 티티안의 그림보다 그리고 고딕 성당보다 훌륭하다는 점을 덧붙인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웨이부쉬는 랄프가 예술은 그 예술을 능가하는 삶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114). 랄프가 작가 제임스를 구현하다고 보면 제임스가 이사벨의 이야기에 “여인의 초상”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해서 이를 굳이 이사벨을 초상화의 프레임 속으로 고정시키려는 오스몬드적인 충동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보다는 랄프가 예술보다 앞서는 삶의 고귀함을 인지하듯이 제임스 역시 이사벨의 초상보다 우선하는 이사벨의 가치를 인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임스가 『여인의 초상』에 붙인 “서문”(Preface)을 검토하면 작가가 이사벨을 둘러싼 작가 본인의 의도 즉 플롯보다 이사벨이라는 생생한 하나의 인물이 지니는 삶의 동력(agency)에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이 드러난다.

나 자신도 나의 등장인물들의 배경 - 내게는 대개 말 앞에 수레를 두는 것의 인상을 준 너무 예비적이고 특혜적인 관심인 - 보다 그 등장인물들을 훨씬 더 앞서서 의식했다. 나는 너무나 자기 결정력이 강해서 그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이야기의 주체들을 이후에 만드는 창의적인 작가들을 부러워했을지는 모르나, 모방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개시하기 위한 주체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어떤 이야기도 경시할 수 있었다; 나는 흥미를 위해 그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의 천성에 의지하지 않는, 따라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방식에 의지하지 않는 그 어떤 상황도 경시할 수 있었다. 내가 알기로 - 성공한 듯이 보이는 소설가들 사이에 - 이와 같은 토대에 무관심한 상황을 제공하는 소위 재현이라고 불리는 방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아주 미신적으로, 내가 그러한 곡예를 시도하고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존경스러운 러시아인의 증언이, 그 당시에, 나에게 지녔던 가치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I was myself so much more antecedently conscious of my figures than of their setting-a too preliminary, a preferential interest in which struck me as in general such a putting of the cart before the horse. I might envy, though I couldn't emulate, the imaginative writer so constituted as to see his fable first and to make out its agents afterwards: I could think so little of any fable that didn't need its agents positively to launch it; I could think so little of any situation that didn't depend for its interest on the nature of the persons situated, and thereby on their way of taking it. There are methods of so-called presentation, I believe-among novelists who have appeared to flourish-that offer the situation as indifferent to that support; but I have not lost the sense of the value for me, at the time, of the admirable Russian's testimony to my not needing, all superstitiously, to try and perform any such gymnastic. (6)

제임스는 작품의 서사를 먼저 마련해 두고 그 서사의 행위자를 나중에 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이 부럽다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가 거듭 강조하는 바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한 서사에 앞서 그 서사적 상황을 개진해 나갈 인물의 자율성이다. 제임스와는 달리 서사의 동력이 되는 인물들의 주체성에는 무관심해 보이는 상황을 재현하는데 치중하는 소설가들에 빗대어 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스몬드라고 생각된다. 오스몬드가 망토처럼 두르고 다니는 “무심함”(indifference)은 자신이 미리 의도하고 마련한 계획의 틀과 충돌하고 마찰을 빚는 인격적 주체의 동력에 대해 표명하는 경멸감 혹은 무관심함이기도 하다. 반면 제임스는 미리 고안된 계획안에 인물을 끼워 넣어 그를 하나의 초상화로 전락시키는 재현 방식으로부터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오스몬드의 사악한 심미주의에 지나친 무게감을 부여하여 작가 제임스마저 오스몬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파악한 프리드만의 주장에도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프리드만이 간과한 랄프의 질병을 둘러싸고 있는 디테일한 서

사들과 작가가 랄프의 질병과 그로 인한 죽음을 맥락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주목하면서 랄프를 통해 제임스가 소설쓰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점검해 보는 것은 『여인의 초상』을 다시 읽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2. 랄프의 앓는 몸 다시 읽기

제임스는 『여인의 초상』에서 19세기 영국소설이 필수 항목으로 갖추고 있는 티타임 장면(tea-time scene)을 독특한 방식으로 뒤틀어서 사용한다. 제임스는 그 동안 여성인물들이 거의 전유하다시피 해 온 티타임 장면을 남성 인물들에게 배치해 주는 것으로 작품을 개막한다. 때는 완벽한 여름 오후의 한복판이다. 티타임에 쓰이는 소품들은 오래된 영국 시골 저택의 잔디밭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작가는 먼저 독자의 시선이 평화로운 티타임의 배경인 잔디밭에 머무르게 한 뒤에 잔디밭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따라 마침내 티타임의 남성 주인공들을 바라보도록 한다. 잔디밭 위에 드리운 그림자의 주인들은 티 테이블 가까운 곳에 있는 버드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터칫 씨(Mr Touchett)와 그의 눈앞에서 산만한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며 대화를 나누는 중인 랄프, 그리고 워버튼 경이다. 터칫 씨는 유별나게 커다란 컵을 손에 들고 있는데 그 컵의 문양은 티세트의 다른 컵들의 것과는 달리 밝은 색들로 채색되었다고 묘사된다. 터칫 씨는 컵을 손에 오래 들고 자신의 저택을 바라보면서 차를 음미하는 듯이 보이는 반면 나머지 두 청년들은 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담배를 피우면서 어슬렁거리는 중이다. 랄프는 종종 멈춰 서서 아버지를 주의 깊게 살핀다. 이 장면에서 윤곽이 잡히는 랄프의 외양은 키가 크고 말랐으며 무생기고 병색이 있고 영리하고 매력적인 얼굴을 지녔다는 것인데 그는 한 마디로 총명한 동시에 창백해 보인다. 항상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니는 그의 버릇도 묘사된다. 눈에 띄는 추가적인 디테일들은 터칫 씨가 터칫 부인의 초록색 술을 덮고 있다는 점과 랄프가 친구와의 이야기 중임에도 아버지의 티타임 시중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이사벨이 가든코트에 깜짝 등장하기 직전 가든 코트에는 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살피고 간호하는 중이다.

주로 여성들이 점유해 온 장면에 남성인물들이 배치되고 더구나 티타임 장면임에도 티를 마시는 인물은 유별난 다기를 사용하는 터칫 씨 혼자뿐인데 그는 병자이며 부인의 술을 덮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독특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터칫 씨를 보살피는 일명 “아주 훌륭한 간호사”(a very good nurse)인 아들 역시 병색이 완연하다(23).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영국 전원의 티타임에 아픈 남성들이 등장하여 티타임의 예의범절을 뒤엎는 듯이 행동한다. 이렇게 제임스는 소설의 도입부부터 티타임 신(scene)의 껍데기는

그대로 두되 그 내면의 구체적인 모양새는 뒤섞고 혼종시키는 식의 서술 방식을 구사한다. 독자는 이와 같은 제임스의 서술상의 특징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소설의 익숙한 컨벤션(convention)을 가져와서 그 외면은 유지하면서도 내부의 양상과 효과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법은 바로 랄프의 앓는 몸을 재현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이 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읽기가 요구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제임스는 영국의 티타임 문화가 전유해 온 섬세한 사교 전통의 내면을 비워낸 자리에 병든 미국인 부자의 “간병”(nursing)의 한 양상을 채워 넣으면서 한 편으로는 이사벨의 도착으로 일깨워지고 살아나기 전 영국의 쇠잔한 문화의 한 단면을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랄프의 앓는 몸이 역설적으로 향유하는 가능성의 한 단면 역시 부각한다. 랄프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차를 마시는 아버지를 보살피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이다. 여성들 혹은 그녀들의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는 중에 정보를 교환하고 사교를 나누는 데 쓰이던 티타임이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눈빛과 얼굴표정만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내밀한 친교와 돌봄의 장으로 바뀌었다. 제임스는 소설의 컨벤션을 들추어 세부적인 재현의 단위 마다 내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부과한다.

제임스의 소설 재현 방식의 특징은 사물 혹은 인물이 주체적으로 그가 도입한 재현의 틀 그 이상의 영역을 타진할 수 있는 숨구멍을 열어놓는 데 있다. 랄프의 질병과 앓는 몸이 재현되는 방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작가가 랄프의 앓는 몸을 어떠한 시각에서 재현하는 지를 자세히 짚어보기에 앞서 우선 기존의 서사에서 질병이 취급되고 재현되어온 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잔 손탁(Susan Sontag)은 저서 『은유로서의 질병』(*Illness as Metaphor*)에서 육체적인 질병이 질병 그 자체로 고려되기 보다는 하나의 상징이자 메타포로 사용되어 왔음을 고찰하면서 질병을 생각하는 가장 진실한 방법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앓는 방법은 질병에 관한 은유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데 있다고 천명한다(3). 손탁이 주요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질병은 근대의 상징적인 질병인 결핵(tuberculosis)과 현대의 질병인 암(cancer)이다. 손탁은 올리버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의 희곡 『그녀는 지배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다』(*She Stoops to Conquer*)를 예로 들며 18세기부터 결핵에 관한 일련의 감상주의적 환상들이 이미 하나의 정설로서 유통되었음을 설명한다. 결핵은 세련된 영국 사회의 속물과 벼락부자들의 눈에 우아함과 섬세함, 예민함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침(index)과 다름없었다. 18세기에 사회적이고 지리적인 이동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났는데 이제 질병은 자아를 바라보는 새로운 태도에 관한 수사 어구처럼 기능하기 시작한다(26-28).

폐결핵(consumption)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외양의 한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더불어 배불리 먹는 것은 섬세한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취급되고 폐결핵 환자처럼

아파 보이는 것이 매혹적으로 생각되었다. 결핵에 걸린 사람의 몸은 귀족 계급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데서 물러나 하나의 이미지로 자리를 잡게 된 시기에 귀족적인 외관을 나타내는 새로운 모델로 부상했다. “결핵을 낭만화하는 일”(the romanticizing of TB)은 두드러지게 근대적인 활동 중에서 널리 퍼진 최초의 사례가 된다. 그리고 호소력 있는 연약함과 우월한 감수성을 상징하는 결핵 환자의 초취한 외양은 점차 여성에게 이상적인 외모로 정착한다. 질병의 주위를 둘러싸고 구축되어온 이미지들에서 개인에 관한 근대적인 생각을 추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핵 환자에게 부여된 신화는 또한 그를 뚜렷한 직업 없이 보헤미안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방랑자이자 아웃사이더라고 규정한다. 19세기 초반에 키츠(John Keats)와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을 비롯한 결핵 환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요양 장소는 이탈리아나 지중해에 자리한 섬 등으로 지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들 중에 하나이다. 한편 결핵 환자는 매혹적으로 비취진 그 만큼 특별한 두려움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결핵 환자는 커뮤니티에서 분리되어 소외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특수한 점을 지닌 사람, 또 남다른 열정을 지닌 동시에 그 열정으로 억눌러야만 하는 사람 등으로 인식되었다. 결핵은 때로 환자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그의 내밀한 곳에 자리 잡은 강렬한 욕망을 지시해주는 지표로 인식되곤 했다(28-45).

제임스가 청년 폐결핵 환자로서의 랄프를 재현할 때 손택의 세밀한 분석이 말해주는 바와 같은 질병을 둘러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신화적 관점들이 그 배후에서 일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랄프는 심한 감기를 앓은 뒤에 그의 폐에 남아 전이된 인플루엔자에 의해 폐결핵 환자의 신체가 되고 나서 “속담(경구)에도 있듯이”(as the phrase is) 따뜻한 외국에서 겨울을 보낸다. 겨울에는 영국의 음습한 기후를 피해 따뜻한 남쪽 지방에 가서 태양을 쬐고, 바람이 불 때는 집에 머물면서 외출을 삼가고, 비가 올 때는 침대에서 하루를 보내고, 가끔 밤새 눈이 올 때는 침대에서 영영 못 일어날 뻔하기도 하는 요양생활의 처량하고 민감한 디테일들은 랄프와 당대의 폐결핵 환자들이 공유한 삶의 양식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57). 그러나 제임스는 질병을 둘러싼 메타포들의 갑갑한 포위망에 랄프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는 특히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줄곧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예술가들의 특권이자 비극적인 운명의 굴레라고 여겨진 결핵을 랄프의 몸을 재현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 들여오면서도 랄프가 그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열어놓는다. 랄프가 자신의 병을 바라보는 방식에 주목해 보면 제임스가 폐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의 테두리, 손택이 상술한 예의 그 편견과 환상의 더께로 점철된 질병의 외면을 취하면서도 결국 이와 같은 메타포의 횡포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앓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랄프에게 폐결핵이라는 병명을 부여했음을 간파하게 된다.

제임스가 랄프의 질병을 재현하는 관점을 따라가 보면 랄프의 앓는 몸을 보다 적극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더 나아가 감식가로서의 랄프의 면모를 오스몬 드와는 차별되는 건강한 차원에서 사줄 수 있게 된다. 랄프가 감식가로서의 기질을 처음 발휘하기 시작한 때는 질병에 걸린 자신의 몸을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부터이다. 구체적인 경위를 짚으면서 랄프가 하나의 “불합리한 일”(anomaly)로서의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고 소화하는 방식을 점검해보자. 랄프는 옥스퍼드(Oxford)를 졸업한 뒤 몇 년간을 여행으로 보내고 나서 아버지의 은행에 취직한다. 그런데 18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그는 자신이 심각하게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그는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 그 감기는 그의 폐에 스스로를 고정시키고 그의 폐를 지독한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일을 포기해야만 했고 글자 그대로, 그 자신을 돌보는 유감스러운 지령에 착수했다. 처음에 그는 그 일을 무시했다; 그가 돌보고 있는 사람은 조금도 그 자신이 아니라, 그가 아무런 공통점도 발견할 수 없는 한 명의 재미없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사람은 친분을 항상 시켰고, 랄프는 마침내 이 사람에 대해 어떤 마지못해 주는 관용을, 심지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존경심을 지니는데 이르렀다. 불행은 기묘한 동료들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 무엇인가가 위태롭다고 느끼면서 - 이 무엇이 대체로 일상적인 위트에 관한 그의 명성이라고 생각되었다 - 그의 불품없는 책임에 상당한 관심을 쏟아 부었다. 여기에는 적절한 주의가 기울여졌고 이는 적어도 이 불쌍한 청년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He had caught a violent cold, which fixed itself on his lungs and threw them into dire confusion. He had to give up work and apply, to the letter, the sorry injunction to take care of himself. At first he slighted the task; it appeared to him it was not himself in the least he was taking care of, but an uninteresting and uninterested person with whom he had nothing in common. This person, however, improved on acquaintance, and Ralph grew at last to have a certain grudging tolerance, even an undemonstrative respect, for him. Misfortune makes strange bedfellows, and our young man, feeling that he had something at stake in the matter—it usually struck him as his reputation for ordinary wit—devoted to his graceless charge an amount of attention of which note was duly taken and which had at least the effect of keeping the poor fellow alive. (57)

랄프는 폐결핵에 걸린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과업을 “유감스러운 지령”으로 받아들인다. 처음에 그는 질병에 걸린 자신의 몸을 “그 자신”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폐결핵을 앓는 랄프는 병에 걸린 몸을 돌보는 임무를 맡은 랄프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지니지 않

은 따분한 사람처럼 생각된다. 그러다가 앓는 랄프는 점차 간병하는 랄프와 친분을 터가고 급기야 간병인 랄프는 앓는 자신에 대해 수줍은 존중의 감정까지 품게 된다. 그의 “불품없는 책임”에 상당한 정도의 관심을 쏟아 부은 일이 랄프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한다. 랄프가 “좋은 책을 빈약한 번역으로 읽는 것 같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힘은 몸이 아픈 그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얻은 “돌보는 자신”과 “앓는 자신” 사이의 유대감과 신뢰이다(57).

랄프의 의식 어디에서도 폐결핵이라는 병명 주위에 형성되어 온 센터멘털한 편견이나 신화적인 감상이 작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제임스는 문화적인 맥락으로 다분히 점철된 결핵이라는 재현의 틀로 랄프를 재현하되 랄프로 하여금 질병을 안으로부터 찬찬히 응시하게 함으로써 질병 그 자체를 사고함으로 은유적인 맥락을 탈출할 수 있는 이른바 손탁 식의 건강함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랄프는 힘겹게 겨울을 날 때도 있고 비교적 가뿐하게 겨울을 보내는 적도 있다. 겨울을 상대적으로 견딜만하게 보내면 실질적인 회복의 희망이 고개를 내밀기도 한다. 그러나 랄프의 희망은 이 소설이 처음 개막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소멸된다. 유난히 날씨가 험한 겨울 알지에(Algiers)에서 몇 주간 사경을 헤맨 랄프에게 건강의 회복은 기적과 같았다. 랄프의 냉철함은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도 어김없이 발휘되어 이와 같은 기적적인 회복은 오직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는데 회복한 건강함을 처음으로 소비한다. 랄프는 그에게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냉정하게 응시하면서 죽음으로부터의 유예를 최대한 알뜰하게 쓰려고 다짐한다. 랄프가 사촌 이사벨을 만나게 되는 시점은 이러한 결심을 한 직후이다. 통풍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 터컷 씨보다 자신이 더 오래 살게 될 전망을 두고 늘 염려하던 랄프는 “진실로 흥미로운 가녀린 이사벨”에게서 “고차원적인 오락”(an entertainment of a high order)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아버지보다 오래 살 경우의 보상을 그녀를 지켜보는 일에서 찾으려고 한다(81).

이사벨의 곁에서 그녀의 미래를 지켜보고 싶어 하는 랄프의 욕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 물론 랄프가 이사벨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방관자”(spectator)의 혐의를 아주 벗기기는 힘들다. 그러나 랄프의 심미적인 욕구를 프리드만이 파악한대로 오스몬드의 사악한 심미주의의 연장선에서 논한다거나 오스몬드와 함께 이사벨을 사냥하기 위해 간계를 꾸미는 마담 멀이 구현하는 일종의 닳고 닳은 유럽의 심미주의와 랄프의 미학적인 욕구를 동일한 층위에서 파악하는 것은 마땅히 피해야 한다. 이사벨과 랄프가 런던에서 여행 중에 나누는 대화는 이사벨을 대상으로 하는 랄프의 미학적 욕구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사벨과 랄프는 그녀가 워버튼 경의 청혼을 거절한 일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참이다. 이사벨은 랄프가 워버튼 경에게 부탁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을 계속한다면 그가 단지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할

뿐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이에 대해 랄프는 “나는 너랑 논쟁할 생각이 전혀 없어. 나는 오로지 너를 혼자 두고 싶을 뿐이야. 나는 단순하게 네 자신의 감정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라고 대꾸한다. 이사벨이 다소 초조한 투의 웃음과 함께 “정말 감사한 일이군요”라고 응수하자 랄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입장을 항변한다.

‘물론 너는 내가 나와 상관없는 일에 참견한다는 뜻이겠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짜증나게 하지도 않고 나 스스로를 당황시키지도 않는데 이 문제를 너에게 이야기하면 안 될게 뭐 있어? 내가 일말의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보답의 희망 없이 너를 꾸며봤자 무슨 소용이야? 내가 내 티켓 값을 그렇게 많이 지불했는데 그 쇼를 정말로 볼 수가 없다면 병을 앓고 장애를 지니고 인생의 게임에 단순한 관망자로 전락한 데에 무슨 소용이 있겠니?’

‘Of course you mean that I’m meddling in what doesn’t concern me. But why shouldn’t I speak to you of this matter without annoying you or embarrassing myself? What’s the use of adorning you without hope of a reward if I can’t have a few compensations? What’s the use of being ill and disabled and restricted to mere spectatorship at the game of life if I really can’t see the show when I’ve paid so much for my ticket?’ (169)

랄프가 이사벨 주연의 쇼 관전 티켓을 사기 위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음을 언급한다고 해서 혹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관망자의 위치를 점유하도록 운명 지워진 자신의 딱한 처지를 거론한다고 해서 랄프의 심미적 입장을 얼마간 패배주의적이고 보복적인 성격으로 규정지를 필요는 없다. 랄프는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관망자의 위치를 차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다. 그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질병을 앓는 랄프라는 일종의 타자를 끈기를 가지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자기 안의 모순과 혼종을 포용하고 견디는 능력을 체화한 바 있다. 랄프의 관망자적 입지는 무엇보다 질병을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성격을 전제로 하기에 상대방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유하여 하나의 예술품의 틀에 가두고자 하는 오스몬드식의 심미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사벨을 존중하고 그녀의 미래를 지켜보고자 하는 랄프는 어떠한 실질적인 보상도 요구하거나 소망하지 않는다. 오스몬드의 경우에 이사벨을 자기의 미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초상화의 프레임 속에 가두고자 한다면 랄프의 경우에는 살아 움직이는 이사벨의 초상을 보는 행위를 통해 다만 그의 삶을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한다.

조지 카텝(George Kateb)은 「심미주의와 윤리성: 그들의 협력과 대립」(“Aestheticism and Morality: Their Cooperation and Hostility”)에서 예술뿐만이 아닌 광범위한 영역의 경험으로부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에서 추구하고 발견하는 것을 채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일반적인 의미의 심미주의라고 정의한다. 카텝은 예술이 가

장 강렬한 종류의 미학적인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영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세상이 예술이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경험을 체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통찰한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긴급한 심미적인 욕구가 예술보다는 삶 쪽으로 투영된다는 지적이다(12). 그런데 삶에서 예술적인 체험을 구하려는 이와 같은 태도는 종종 도덕적인 위험성을 가져온다. 때문에 카텝은 “미학적인 갈망”(aesthetic cravings)과 대상을 향한 “감탄”(admiration)과 “놀라움”(wonder)의 정서에서 비롯되는 “미학적인 감정”(aesthetic feelings)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상에 대한 경외감으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거리”를 전제하는 “미학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대할 때에만 삶과 예술을 혼동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텝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비교적 바람직한 심미주의의 모델은 “민주적인 심미주의”(democratic aestheticism)이다. 그가 제시하는 민주적인 심미주의의 태도는 세계를 향하여 가능한 많은 수용력과 민감함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인 심미주의의 태도를 지니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미션은 이 완고한 세계를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의식하는 일이다. 민주적인 심미주의자는 예술이 아닌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향한 갈망을 미학적인 것으로서 의식하고 이를 윤리를 위하여 억제할 수 있다(31).

심미주의와 윤리가 서로를 억제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평을 타진하는 카텝의 정치철학적인 접근으로 랄프와 오스몬드가 각각 견지하는 심미적인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조명할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오스몬드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포즈(pose)화하여 세상의 호기심을 자극하되 만족시키지는 않는 전략으로 그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자 한다. 오스몬드적인 삶의 태도는 스스로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려는 예술가적인 욕망이라는 허울 아래에서 용인되며 예술을 향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이사벨을 현혹시킨다. 이사벨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오스몬드라는 예술가이자 예술품을 후원하고자 하는 소망에 그와의 결혼을 감행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이 오스몬드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 이미지이자 초상화로 발 묶이고 만다. 반면에 랄프가 질병에 묶인 자신의 몸을 가능한 정직하게 응시하는 태도는 카텝이 천명한 민주적인 심미주의에 태도에 가깝다. 랄프는 폐결핵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수척해지는 본인의 모습을 하나의 일반적인 농담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와 포용력을 보여준다(364). 랄프는 존속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자신의 몸을 견디고 지탱한다. 랄프는 또한 이사벨의 아름다움을 소유하지 않으려는 윤리의 힘을 견인해간다. 그런 까닭에 이사벨에게는 랄프의 외면적 추함마저 사랑스럽게 여겨진다.

그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가 아프다는 데 대한 그녀의 의식은 지금까지 그

안 에 일종의 위안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건강 상태는 한계로 보이지 않고, 일종의 지적인 이점으로 보였다; 그것은 그를 모든 직업적이고 공식적인 감정으로부터 면 제 시켰고 그에게 오로지 인간적일 수 있는 사치를 남겼다. 그렇게 파생된 인격은 정말 기본 좋았다; 그는 질병의 진부함에 대한한 전거로 남았다; 그는 개탄할 만 큼 아파야 하는 데 동의해야만 했지만, 어쩐지 의례적으로 아픈 것은 피해갔다. 이것이 그녀의 사촌에 관한 그녀의 인상이었다. (중략) 그는 밝고, 자유로우며, 관대한 영혼이었다, 그는 지혜의 모든 깨달음을 갖추었으면서도 그 현학은 전혀 지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다.

He was so charming that her sense of his being ill had hitherto had a sort of comfort in it; the state of his health had seemed not a limitation, but a kind of intellectual advantage; it absolved him from all professional and official emotions and left him the luxury of being exclusively personal. The personality so resulting was delightful; he had remained proof against the staleness of disease; he had had to consent to be deplorably ill, yet had somehow escaped being formally sick. Such had been the girl's impression of her cousin . . . He was a bright, free, generous spirit, he had all the illumination of wisdom and none of its pedantry, and yet he was distressfully dying. (364-65)

랄프의 병든 몸이 발산하는 밝고 자유로우며 관대한 아우라는 앞서 손탁이 문제시한 바 있는 세상 사람들이 결핵에 대하여 품은 낭만적인 견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 랄프는 결핵을 포위하고 있던 각종 메타포와 환상을 떨어 낸 채로 자유롭게 존재한다. 랄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질병의 진부함에 대항하는 전거가 되고, 그의 앓는 몸은 거꾸로 그의 지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랄프가 견지하는 민주적인 심미주의자의 자세는 그가 결혼 후 이사벨의 변화를 꿰뚫어 보고 오스몬드의 천성을 처음부터 통찰하는 민감한 지성을 지녔다는 점에서도 엿보인다. 랄프는 지적인 유희와 쾌활한 토론을 즐기던 재기발랄한 이사벨이 그녀의 남편을 재현하는 “우아한 숙녀”로 변화되었다는 점, 나아가 이사벨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이사벨의 철저한 친구에도 불구하고 직감한다. 랄프가 외부세계에 대하여 견인하는 윤리적인 호기심은 타인의 정신적인 아픔을 진찰할 수 있는 힘이다. 랄프는 자신의 결핵을 앓는 몸을 하나의 미학적인 “실패”로 인식하지 않고 민주적인 심미주의자의 미덕인 윤리적인 관용과 인내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지행한 결과 마침내 질병의 굴레를 탈출하여 타인의 아픔까지 읽고 보살피기에 이른다. 이쯤 되면 제임스가 랄프에게 부과한 결핵이라는 질병은 “치별”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으로 이해되어야 온당할 듯하다.

3. 랄프의 유령과 제임스의 소설 쓰기

『여인의 초상』의 서사 속에서 랄프는 명백하게 죽음을 향해 전진해 간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미 심각한 결핵 환자였던 랄프는 작품이 종결을 향해 내달릴수록 점점 걸음에 힘이 없어지고 비틀거리다가(364) 급기야 걷기를 포기하고 하루 종일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는 신세로 전락하더니(425), 마침내 로마의 인(inn)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다가(528) 가든코트의 침실에서 죽음을 맞이한다(615). 이 소설 속에서 랄프의 육체는 분명 시들고 이물어가다가 마침내 시체가 되는 운명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랄프의 시신이 실제로 등장하는 장면을 검토해보면 랄프가 정말 죽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사벨이 랄프가 죽은 채 누워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텃밭 부인은 랄프의 한 손을 그녀의 손으로 잡은 채로 아들의 침상 곁에 앉아 있다. 침상의 반대편에 있는 의사는 랄프의 손목을 잡고 있다가 이사벨이 들어온 뒤에 다시금 그의 손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리고 이사벨이 보게 되는 랄프의 모습은 그가 살아있던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우며 6년 전에 죽은 텃밭 씨와 묘하게 닮았다(615). 물론 랄프가 죽어서 누워있다는 물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임스는 죽은 랄프의 모습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듯이 재현한다. 랄프의 죽은 몸은 텃밭 부인과 의사의 살아 움직이는 손과 결합한 채로 묘사되고 그의 얼굴은 살아생전에 늘 병색을 달고 있던 때보다 더욱 아름답다. 제임스가 굳이 이와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죽은 랄프를 재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랄프는 죽어서도 이사벨과의 약속을 지킨다. 랄프는 이사벨이 처음 가든코트로 오던 날 만일 그녀가 살면서 충분히 고통을 받는다면 오래된 저택에 떠도는 유령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죽은 랄프는 마치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현하기라도 하듯 이사벨 앞에 “정령”(spirit), 곧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랄프가 죽기 전 침상에서 이사벨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다음 날 아침, 이사벨은 춥고 희미한 새벽에 하나의 유령이 그녀의 침대 곁에 서 있는 걸 느낀다.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이사벨은 그녀 곁에 랄프가 서 있다고 생각한다. 방의 희미함 속에서 모호하게 떠도는 그. 이사벨은 심지어 랄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의 친절한 눈과 마주친다. 이사벨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확신한다. 그런데 그녀가 확신하는 바는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그녀는 랄프의 유령을 보고 그의 죽음을 확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랄프의 죽음을 확신하고 그의 침실로 간 이사벨이 보게 되는 것은 살아있을 당시보다 더 아름다운 랄프의 모습이다. 제임스는 랄프의 시신 대신 하나의 정령을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제임스는 무엇을 의도했는가.

제임스는 랄프에게 결핵이라는 질병의 진부한 함의와는 대조를 이루는 즐거운 인격

체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종결부에 등장한 랄프의 유령을 랄프가 마침내 병든 육체를 탈피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을 법하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비상하듯이 랄프는 병든 육체를 벗고 죽음을 통과해 비상하는 셈이다. 랄프는 자신의 앓는 몸을 정직하게 응시하고 사유한 결과 육체를 비상의 도구로 삼아 생전보다 더 아름다운 자아를 획득한다. 랄프가 앓는 몸에서 출발하여 마침내 유령의 형태로 자유롭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제임스의 소설쓰기에 관한 하나의 사유들을 제공한다. 랄프가 유령이라는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은 자신의 앓는 몸을 포위한 은유적인 충동들을 극복하고 고통을 삶의 이름으로 응시하고 성찰하여 때로 미학적인 죽음의 충동까지 윤리적인 삶의 의지로 이겨낸 용기 있는 실천에 다름 아니다. 제임스는 “서문”을 통하여 본인의 소설 작업에서 인위적인 플롯보다 생동하는 주인공의 주체성을 더욱 강조한 바 있다. 제임스에게 소설쓰기는 이사벨을 하나의 초상화의 틀을 이용하여 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갈망을 억제하고 이사벨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작가 스스로 은유의 그물망을 풀어헤쳐 마침내 그녀가 윤리적인 삶의 감수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과 같다.

랄프가 죽어가는 침상에서 이사벨과 랄프는 진실을 함께 바라본다는 앓 속에서 하나가 된다. 이사벨은 랄프가 터칫 씨에게 유산 중 일부를 자신에게 상속하도록 권유했다는 비통한 진실을 확인하고 랄프에게 오스몬드가 바로 그 돈을 보고 자신과 결혼했다는 사실 역시 숨김없이 고백한다. 이사벨은 랄프가 고통이 미치는 범위 너머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으며 랄프가 자신을 언제나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한다. 랄프는 “만일 네가 미움을 받았다면 너는 또한 사랑 받았음을 기억해”라는 말로 삶에는 고통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이사벨의 깨달음을 지지한다. 랄프에게 이사벨을 바라본다는 일은 그녀가 삶 속에서 마주치는 무수한 사건과 불합리한 상황들을 윤리적인 포용력으로 이해함을 뜻한다. 이를 염두에 둘 때 프리드만이 지적한 이사벨의 새로운 미학적 관점은 랄프의 민주적인 심미주의가 지니는 의의를 그녀가 공유하고 이해한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임스는 소설의 결말에서 오스몬드에게 돌아가는 이사벨의 선택에 관한 해석의 방향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랄프가 성취한 민주적인 비전을 공유한다. 제임스는 이사벨이 내린 자율적인 결정과 그 결정이 가져 올 결과까지 포용하고자 한다. 랄프가 앓는 몸을 탈출하여 자유로운 유령이 되었다듯이 이사벨은 그녀를 초상화에 예쁘게 담고자 하는 (오스몬드를 위시한 남성 구혼자들의 그리고 나아가 작가의) 욕망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 제임스는 이사벨의 삶을 미학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갈망을 내려놓고 윤리적인 포용력을 택한다.

참고문헌

- Brooks, Peter.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Balzac, Henry James, Melodrama, and the Mode of Excess*. New Haven: Yale UP, 1976.
- Freedman, Jonathan. *Professions of Taste: Henry James, British Aestheticism, and Commodity Culture*. Stanford: Stanford UP, 1990.
- Gregory, Melissa Valiska. "From Melodrama to Monologue: Henry James and Domestic Terror." *The Henry James Review* 25.2 (2004): 146-167.
- James, Henry. *The Portrait of a Lady*. New York: Oxford UP, 1998.
- Jottkandt, Sigi. "Portrait of an Act: Aesthetics and Ethics in The Portrait of a Lady." *The Henry James Review* 25.1 (2004): 67-86.
- Kateb, George. "Aestheticism and Morality: Their Cooperation and Hostility." *Political Theory* 28.1 (2000): 5-37.
- Luciano, Dana. "Invalid Relations: Queer Kinship in Henry James's The Portrait of a Lady." *Henry James Review* 23.3 (2002): 196-217.
- Pippin, Robert B. *Henry James and Modern Moral Life*. New York: Cambridge UP, 2001.
- Porte, Joel, ed. *New Essays on The Portrait of a Lady*. New York: Cambridge UP, 1990.
- Posnock, Ross. *The Trial of Curiosity: Henry James, William James, and the Challenge of Modernity*. New York: Oxford UP, 1991.
- Sanner, Kristin. "Wasn't all history full of the destruction of precious things?: Missing Mothers, Feminized Fathers, and the Purchase of Freedom in Henry James's The Portrait of a Lady." *Henry James Review* 26.2 (2005): 147-167.
- Sontag, Susan. *Illness as Metaphor and AIDS and Its Metaphors*. New York: Picador, 1978.
- Weisbuch, Robert. "Henry James and the Idea of Evil." *The Cambridge Companion to Henry James*. Ed. Jonathan Freedman. New York: Cambridge UP, 1998. 102-119.

ABSTRACT

Ralph's Aching Body and Ghost: Rereading *The Portrait of a Lady*

Sun Jai Kim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why on earth is Ralph Touchett, an attractive young man deadly sick with a tubercular disease, in order to argue that Henry James remodels aestheticism through Ralph. My presentation suggests a new reading of *The Portrait of a Lady* by pointing out that James' novel establishes reformed aesthetic perspective while detailing Ralph's condition and his way of handling it. I first concentrate on the way tuberculosis is understood and represented in the 19th century cultural context predicating upon Susan Sontag's discussion of "the romanticizing of TB" and then claims that although James brings tuberculosis as a frame to represent Ralph's body he also opens up for Ralph the ways to think beyond the metaphors built up around the disease. Ralph is superior to the temptation of sentimental prejudices or mystical sentiment surrounding the disease. From the very first state of the disease Ralph takes on objective view upon his aching body and while gazing at it enduringly he gradually masters the capability of embracing the contradictions and anomalies of his own body.

Jonathan Freedman has focused on James' point of view on aestheticism discussing the text. According to Freedman, aestheticism is dealt with as an endemic contagion in the novel that even infects James himself. However, my point is that Freedman misses the way Ralph's struggle with the disease is contextualized in the novel and consequently ends up in somewhat flat interpretation. He simply concludes that Ralph's aching body is a visible sign of Osmondian aestheticism's invasive power. My presentation contends that Ralph's spectatorship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Osmondian aestheticism since Ralph can be defined as a "democratic aestheticist" in George Kateb's language. The "democratic aestheticist" maintains as much susceptibility and

acceptability towards life as possible while controlling “aesthetic cravings” to keep life confined in a beautiful frame. In my reading, Ralph’s aching body embodies the resistance to the triteness of romantically-charged tuberculosis and the virtue of a “democratic aestheticist.” Finally, I connect the mature attitude of Ralph with the ethics of writing clarified by James

Key Words tuberculosis, Ralph Touchett, aching body, Susan Sontag, Jonathan Freedman, George Kateb, aestheticism

